

스마트폰센서, 냄새까지도 구별...

미국, 2000개의 냄새맡는 센서 장착 ... 상용화까지는 1-2년 소요

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신생기업이 냄새를 맡고 디지털화하는 스마트폰용 센서를 개발했다고 씨넷과 테크크런치가 1월7일 보도했다.

에더먼트 테크놀로지(Adamant Technologies)의 창업자 겸 CEO인 샘 카미스는 조그만 센서들이 결합해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고 디지털화할 수 있는 컴퓨터 칩을 만들었다며 스마트폰과 컴퓨터 또는 의료기기가 스스로 냄새를 맡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그동안 컴퓨터가 어떤 방의 공기 중에 화학물질이 있는지를 탐지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었으나 인간처럼 피자와 초콜릿 쿠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웠다.

에더먼트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센서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히 정교한 기술을 채택했다.

일반적으로 인간의 코는 피자냄새 등을 다양한 화학물질 중에서 가려내도록 약 400개의 센서를 갖고 있는데 에더먼트 테크놀로지는 개의 코와 유사한 약 2000개의 센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샘 카미스 CEO는 말했다.

에더먼트 테크놀로지는 냄새식별 센서가 담긴 칩을 텍사스 오스틴(Austin)에서 양산하기 시작했다.

에더먼트는 다음 단계로 아이폰에 장착될 소비자용 디바이스를 생산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단가가 100달러 내외여서 본격적으로 해당센서를 채택하려면 아직 1-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.

하지만, 장치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입 냄새가 나쁘게 날 때 미리 경고해주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1/07>